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적은 춤꾼들의
림과 몸과 리의
가인나기

나 밖의 나

안무·구성 / 장 은 미

출 연 / 강휘지, 정진희, 강미향, 이성원, 송현주,
허복희, 감미리, 김효선, 이정인

묵 향 (墨香)

안무·구성 / 박 미 영

출 연 / 박선영, 권봉정, 이정식, 김병주, 김종덕, 김정희

'95. 9. 22(금) 19:30



부산문화회관 중강당
PUSAN CULTURAL CENTER MEDIUM HALL

저.은.차.꿈.들.의.가.을.나.기
라.은.차.꿈.들.의.가.을.나.기



안무·구성 / 박 미 영



부산시립무용단

출 연 / 박선영, 권봉정, 이정식, 김병주, 김종덕, 김경희
스 탭 / 김공주, 김현숙

묵 향 (墨香)

꿈은 현실이 되고 희망은 물거품이 되는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것이 진실된 것인지 알기란 쉽지 않다. 때로는 차가운 체온을 감추기 위하여 피부를 부벼도 보고 어두운 밤거리를 뛰어도 보지만 자기의 실체를 찾을 수 없다. 언젠가 기억속에 머금은 마음속의 향기는 핏줄을 따라 산소와도 같은 생명력을 가져다 준다. 현실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추락하는 꿈. 가슴 속에 인상지워진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부패되어가는 정신을 일깨우고자 하지만 길은 보이지 않고. 어느날 문득 문지방 위에 걸린 선인의 필묵이 향기로 다가와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인다.